

산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결실'

전주시, 휴비스·삼양사·삼양화성 3개 기업과 제1~2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연계 처리 위한 협약 체결

전주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산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시는 10일 휴비스 전주공장 본관 2층 중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휴비스·(주)삼양사·삼양화성(주) 등 팔복동 산단에 입주한 3개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제1·2일반산단단지 완충저류시설 연계 처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휴비스와 (주)삼양사, 삼양화성(주)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 저감 물질을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주 제1·2일반산단단지 완충저류시설에 연계 처리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은 강우 초기에 사업장 부지 내에서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바로 유입되면 하천오염이 유발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부지면적 1만㎡ 이상인 화학제품 제조업 외 13개 업종의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자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 3곳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돼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업이 개별적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휴비스 20억 원, (주)삼양사 7억 원, 삼양화성(주) 10억 원 등 총 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장기화된 경기 불황의 여파로 해당 기업들이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운영하는 데 고충을 토로한 만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 제1·2일반산단단지 완충저류시설 연계로 개별기업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 전북지방환경청과 적극 협의해왔다. 그 결과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주)휴비스 대표로 참석한 백석덕 공

장은 이날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준 전주시에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감사의 표시로 전주시에 지난 7월 1천만 원에 이어 5백만 원을 추가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강한 경제도시 구현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협약과 같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며 "이러한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 '원포인트 레슨'

김혜진 선수, 도내기생국민체육센터 개관 1주년 기념

수영 국가대표 출신 김혜진 선수가 도내기생국민체육센터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김혜진(30) 선수가 전국체전 준비로 한창 바쁜 와중에도 개관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도내기생국민체육센터(이하 센터)를 찾았다.

10일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전남 김 선수의 센터 방문은 센터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공단에서 마련한 이벤트다.

김 선수는 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영 국가대표 출신다운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뒤 자신의 주 종목인 평형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김 선수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소속으로 경영월드컵대회(2011), 제30회 런던 올림픽(2012),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2018),



수영 국가대표 출신 김혜진 선수가 도내기생국민체육센터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2023) 여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다.

방광일 복합시설운영부장은 "센터를 애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김 선수와의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전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대한 협조에도 비판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 대일외교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는 10일 정읍 차항문화관에서 열린 제285차 월례회에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과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일부개정회칙' 등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빛원전 1, 2호기는 노후화된 원전으로 오는 2025년과 2026년 각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 확대 취지로 폐로 대상에서 제외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 대일외교 중단을 촉구했다.

됐다.

협의회는 "한빛원전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명연장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자체와 의회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원자력법 전면 개정도 촉구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추석 대비 응급의료 체계 점검 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시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행정에 나섰다.

우범기 시장은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수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병원의 비상 진료 대책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해 원활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예수병원의 응급의료센터와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시설을 차례로 돌아보며 의료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다.

특히 우 시장은 신속식 병원장 등 예수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명절 기간 비상 진료 대책에 대해 청취하고, 긴



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당부했다.

우 시장은 또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의료진들에게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명절 연휴에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의료계 공백이 발생하고 처음 맞는 이번 추석 연휴가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헌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소아 진료와 장애인 분만의 경우 시급성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추석 연휴 기간 '청소종합대책' 추진

전주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석맞이 청소종합대책을 가동기로 했다.

시는 오는 14~18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청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명절 전후로 청소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6~13일까지를 '추석맞이 청결주간'으로 정하고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가 적치된 취약지의 쓰레기를 말끔히 정리하기로 했다. 또, 동별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자생단체, 일반시민 등이 합동으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4일과 18일 이틀 동안 직

영권역의 환경관리원에 대해서는 4시간의 휴일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연장하고, 연휴 기간 다량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 및 각종 청소 민원을 해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생활 쓰레기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영 및 대행업체별로도 자체 공동처리반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당일인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쓰레기 수거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점주시 누리집 등을 통해 쓰레기 수거 휴무일을 알려 가급적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명절에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 홍보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귀향길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부터 음식 조리 중 화재사고까지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명절에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 등 홍보에 나섰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추석 연휴 전까지 일자별(9~14일)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 시리즈(1~5탄)를 제작하여 인스타그램(@deokjinsobang_119), 유튜브(@전주덕진소방서)를 통해 업로드하

고 있다고 전했다.

9일에 올라온 영상 주제는 '추석 명절 귀향길 안전운행' 내용으로 △충분한 휴식과 졸음운전 방지 △속도 준수와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음주운전 절대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자제 등이다. 이후 추석 명절 전까지 게시될 에피소드 2~5편은 명절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대처 방법, 성묘·벌초 시 안전사고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